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이빨 빠진 호랑이 '잇몸야구' 김선빈 복귀에 한가닥 희망

주중 롯데와 홈·주말 넥센과 원정경기 … 힘겨운 6연전

이빨 빠진 호랑이의 '잇몸야구'는 계속된다.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는 신예 선수들의 분전 속에 지난주 3승3패로 5할 승률을 채웠다.

값진 3승을 가져왔지만 주말 3연전 1위 삼성과의 대결에서 1승2패를 기록하면서 승차가 3게임차까지 벌어졌다. 반면 3위 SK는 지난주 3승2패를 장식하면서 1.5게임차로 KIA를 추격하고 있다.

주전들의 이탈 속에 후반기 삼성과의 대결에서 1승5패로 완패를 기록한 KIA는 1위 고지가 멀어지면서 2위 수성을 목표로 남은 일정을 치러야할 입장에 처했다.

험난한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KIA는 이번 주 주중 롯데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 목동에서 넥센과의 3연전을 펼친다.

안방에서 만나게 되는 롯데는 KIA에게 특히 까다로운 상대다.

6승6패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다 후반기 상승세를 타면서 4위로 치고 올랐다. KIA의 방망이가 시들해진 사이 롯데는 0.278로 팀타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KIA 팀 방어율이 3.80을 기록하고 있지만, 롯데전에서는 4.69까지 뛰어오른다.

설상가상 두 외국인 투수 로페즈·트레비스가 부상과 부진으로 제 몫을 못해주면서 마운드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김선빈

'임시선발'로 마운드를 꾸려오고 있는 KIA는 16일 좌완 박경태를 선발로 낙점했다. 13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3분의2 이닝을 소화했던 박경태에는 올 시즌 세 번째 선발 임무다.

박경태는 7월3일 한화전 첫 선발 등판에서는 5회를 채우지 못했지만 지난 10일 LG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을 3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며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날 박경태는 3-1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계투작전의 실패로 프로데뷔 첫 선발승의 영예는 다음으로 미뤘다.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15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97	58	37	2	0.611	-	1승
2	KIA	105	60	45	0	0.571	3.0	1패
3	SK	92	52	40	0	0.565	4.5	2승
4	롯데	97	48	46	3	0.511	9.5	1승
5	LG	95	46	49	0	0.484	12.0	1패
6	두산	91	39	50	2	0.438	16.0	1패
7	한화	96	41	54	1	0.432	17.0	1승
8	넥센	91	34	57	0	0.374	22.0	4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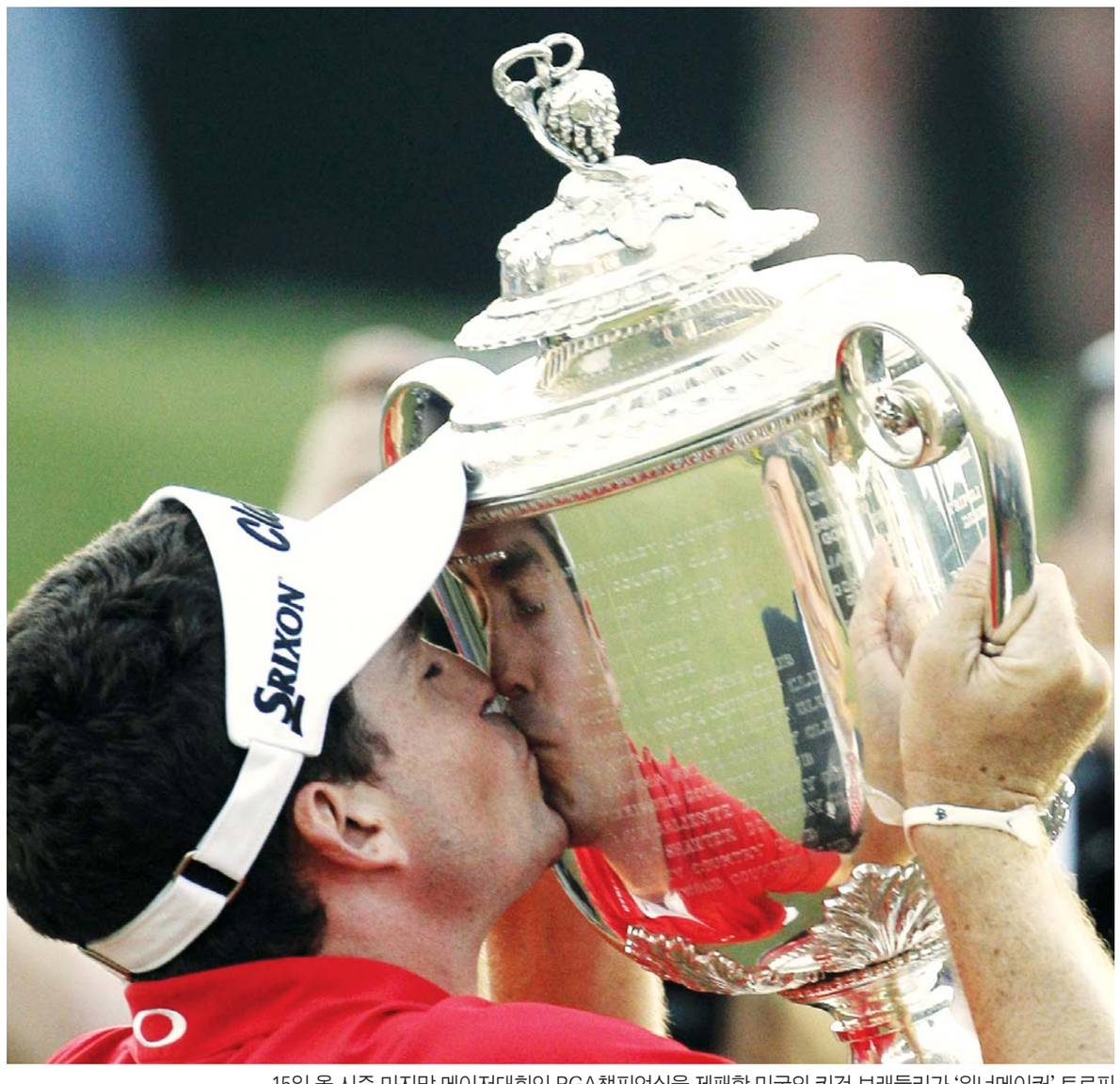
박경태의 상대는 롯데의 베테랑 송승준. 흔들리는 마운드에서 파워를 앞세운 박경태가 한수 위 송승준과의 맞대결이라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운드 첫 대결부터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고되고 있지만 애타게 기다렸던 부상병의 복귀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5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코뼈와 잇몸뼈 골절상을 당했던 김선빈이 롯데전을 통해 그라운드를 다시 밟게 된다. 김선빈은 지난 12일 2군에 합류해 1번타자 겸 유격수로 두 경기를 소화하는 등 예정보다 빨리 복귀전을 치르게 됐다.

김선빈의 복귀로 힘을 얻는 KIA가 '잇몸'들의 혼신을 다한 플레이로 2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야구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 순간을 영원히" 15일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미국의 키건 브래들리가 '위너메이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양파' 하고도 메이저 우승

〈파 3 홀서 6타〉

'루키' 브래들리 PGA 챔피언십 제패 … 나상욱 10위

세계 골프계의 '신인'인 키건 브래들리(미국)가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골프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브래들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존스 크리크의 애틀랜타 어슬레틱 골프장(파70·746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에서 제이슨 더프너(미국)와 최종합계 8언더파 272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승리해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한 25세의 브래들리는 16~18번홀에서 합산 스코어로 승부를 가리는 연장전에서 1언더파를 쳐 이븐파에 그친 더프너를 1타 차로 꺾었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

브래들리는 4라운드 15번홀(파3)에서 그린 옆에서 친 어프로치샷을 물에 빠뜨려 트리플보기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연장전으로 끌고가 우승하는 신인답지 않은 뚝심을 보여줬다.

브래들리는 데뷔 시즌에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 이어 메이저대회 우승컵까지 차지해 타이거 우즈(미국)의 몰락 이후 침체된 미국골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안데르스 한센(덴마크)이 7언더파 273타를 쳐 3위에 올랐고, 스콧 버플랭크(미국) 등 3명이 5언더파 275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는 선전을 펼쳐 공동 10위(2언더파 278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최경주(41·SK텔레콤)는 공동 39위(4오버파 284타),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은 공동 45위(5오버파 285타)로 대회를 마쳤다.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는 공동 59위(8오버파 288타), 2009년 이 대회 우승자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공동 69위(12오버파 292)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아르헨 꺾고 파죽의 3연승

2011 그랑프리 세계선수권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2011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예선에서 파죽지세로 아르헨티나를 꺾고 3연승을 거뒀다.

김형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폴란드 지엘로나구라에서 열린 이 대회 예선 2주차 E조 리그 3차전에서 17점을 따낸 '해결사'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의 활약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를 3-0(25-22 25-16 25-21)으로 완파했다.

지난 13, 14일 쿠바와 폴란드를 차례로 격파한 한국 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 3차전에서 완승하며 예선 7위에 올라 결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와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3승 무패로 앞서 있다.

한국은 강한 서브와 안정된 서브리시브에 중앙과 양 날개 공격을 적절히 섞어가며 아르헨티나를 압박했다. 또 김연경의 맹타가 돋보이는 가운데 공격 득점(41-31)과 블로킹(12-8), 서브(5-2) 모두에서 아르헨티나에 앞섰다. 대표팀은 예선 3주차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으로 이동해 19일 오후 3시 러시아와 첫 경기를 한다. /연합뉴스

〈39〉 현대 유니콘스 V2

약체 예상 뒤집고 용병들 맹활약

20세기말, 2000시즌의 화두는 현대 유니콘스의 또 한 번의 화려한 비상쇼였다.

현대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4강 전력 이하'라는 예상을 비웃듯, 시즌 최다승(91승) 신기록을 작성하며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가 보여준 경기력은 페넌트레이스는 '완벽', 포스트시즌은 '압도'였다.

현대는 V2와 더불어 투타에 걸쳐 8명의 타이틀 홀더를 배출했고 5개의 골든글러브라는 전리품도 챙겼다.

박경완은 15년 만에 이만수에 이은 포수 홈런왕(40)과 페넌트레이스 MVP, 박종호는 타격왕(0.340), 박재홍은 타점왕(115), 정민태·김수경·임선동은 공동 다승왕(18), 임선동은 탈삼진왕(174), 조웅천은 첫 시행된 홀드왕(16)에 등극하였다.

현대는 미국산 용병인 퀸란(37홈런, 91타점, 한국시리즈 MVP)과 더불어 국내산 용병들인 박경완(쌍방울)·박재홍(해태)·박종호(LG)·임선동(LG)등이 우승의 주역들이서, '용병들이 우승시켰다'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현대는 막강 선발진에 조웅천의 깔끔한 홀드와 위재영(2.09, 42SP)의 철벽 마무리로 안정된 마운드를 구축한데다, 무려 8명의 타자가 두 자리 수 홈런을 기록한 가공할 만한 장타력으로 지뢰밭 타선을 구축하여 상대를 압도하였다.

준플레이오프전은 드림리그 3위인 삼성이 승률에서는 오히려 뒤진 매직리그 2위인 롯데와의 대결로 전개됐고, 삼성이 2승1패로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전에서는 드림리그 1위인 현대가 삼성에 4연승을 거두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또 다른 조의 플레이오프전에서는 드림리그 2위인 두산이 매직리그 1위인 LG와 치열한 접전을 벌여 4승2패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복잡한 다단계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2000시즌 한국시리즈는 같은 드림리그에 속해서 승률 1, 2위를 다투었던 현대와 두산 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한국시리즈 1차전서는 현대가 김수경과 조웅천의 무실점 계투와 심재학의 맹타로 3-0의 영봉승을 거두었다. 2차전서는 현대가 임선동의 무자책 호투와 퀸란과 박진만의 각 3타점의 수훈으로 8-2로 낙승했다. 3차전서는 현대 정민태가 진필중과의 선발 대결에서 압도하고 카펜터의 활약에 힘입어 3-1승으로 3연승을 거두었다.

싱겁게 끝나버릴 것 같던 시리즈였지만 현대가 4차전서 두산 조계현의 무실점 호투와 정수근과 홍원기의 활약에 막혀 0-6으로 완패했다. 5차전서는 박경완이 고군분투했으나 정수근이 기회를 만들고 우즈와 심정수가 홈런포로 점수를 쓸어모은 두산에 5-9로 대패했다. 6차전서는 현대가 박명환의 구원역투와 김민호의 맹활약에 막혀 4-5로 석패하며 승부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시리즈 최종전에서는 현대가 한국시리즈 MVP에 오른 용병 퀸란의 결정적인 2개의 홈런으로 6-2로 승리하며 감격적인 V2를 달성했다.

김 재 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